

# 축구

8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 아약스 잡은 발렌시아 ‘H조 1위’ UCL 16강행

 발렌시아(스페인)가 극적인 승리로 2019~2020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 32강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했다. 발렌시아는 11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H조 조별리그 최종전 아약스(네덜란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24분 터진 로드리고의 골을 끝까지 지켜 1-0으로 이겼다.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부상으로 이번 원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영국 런던에서 펼쳐진 같은 H조 다른 경기에서는 첼시(잉글랜드)가 토틸(프랑스)을 2-1로 잡았다. 이에 따라 발렌시아는 3승 2무1패(승점11)로 첼시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차에 이어 상대전적이 우선 적용되는 순위 결정 방식에 따라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두 팀은 조별리그 6경기 골 득실차가 +2로 같았다. 상대전적은 발렌시아가 1승1무로 앞섰다.

지난 대회 4강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킨 아약스는 3승1무2패(승점10)로 3위로 내려앉아 UEFA 유로파리그로 밀려났다. 조별리그 최종전 이전까지 3승1무1패로 조 선두를 달린 16강 진출이 유력했지만 발렌시아전 충격의 패배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황희찬의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는 리버풀(잉글랜드)에게 홈에서 0-2로 져 E조 3위에 머물렀다. 황희찬은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없었다. E조에선 리버풀과 나폴리(이탈리아)가 16강에 올랐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베트남 60년 만에 ‘SEA게임’ 우승…또 한번 신화 일군 박항서 감독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U-22 대표팀이 10일(한국시간) 열린 2020 동남아시아게임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3-0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자 다시 한 번 들썩였다. U-22 대표팀의 우승 직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베트남 축구 팬들(왼쪽 사진). 일부 축구팬들은 태극기를 들어 보이며 한국인 박 감독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 | VN익스프레스 캡처

## “박항서 매직” 밤샘축제…75억동 포상금도

(약 3억8000만 원)

재계약 이후 첫번째 목표 바로 달성  
총리 환영행사때 ‘특별기’로 모셔가  
내년 亞 챔피언십서 도쿄행 티켓 노려

‘박항서 매직’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베트남 박항서호가 또 위대한 역사를 썼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이 2020 동남아시아(SEA)게임 정상에 섰다. 베트남은 10일(한국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리살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끝난 대회 남자부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3-0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SEA게임 우승에 대한 현지의 기대는

대단했다. 성인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을 겸임하며 꾸준히 최고 성과를 내온 박 감독과 최근 계약연장(2+1년)을 하며 베트남축구협회(VFF)가 내건 조건도 SEA게임 금메달이었다.

정말 해냈다. 1959년 초대 대회에서 남베트남(월남)이 우승한 것이 마지막 영광이던 베트남은 2009년 대회 이후 10년 만에 결승에 섰고, 새 역사를 추가했다. 베트남은 1995·1999·2003·2005·2007년에도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60년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은 박 감독과 이영진 수석코치를 비롯한 선수단은 특별기로 마닐라에서 베트남 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주관한 환영행사가 마

련된 하노이로 향했다.

VNA와 징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거액의 포상금이 준비됐다. 베트남 체육국은 10억동을 준비했고, 현지 기업들이 50억동을 준비했다. 대회 결승진출로 이미 15억동이 전달돼 베트남 선수단은 최소 75억동(약 3억8000만 원)을 받게 됐다.

2017년 10월 박 감독이 합류한 뒤 베트남은 모든 대회에서 꽃길을 걸었다. 지난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8자카르다-팔렘방아시안게임 4강 진출, ‘동남아시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을 제패했다. 베트남은 올해 1월 AFC 아시안컵 8강에 올랐고,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SEA게임 금메달은 화룡점정. 박 감독은 “오랜 한을 풀었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베트남의 다음 목표는 2020도쿄올림픽이다. 내년 1월 태국에서 개최될 2020 AFC U-23 챔피언십이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한다. 1~3위가 도쿄행 티켓을 쟁기는 가운데 베트남은 북한·요르단·UAE와 D조에서 경쟁한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U-22 대표팀은 14일부터 22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동계훈련을 갖는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 18일 ‘E-1챔피언십’ 중국-홍콩전 조마조마

축구협, 경찰 등과 소요사태 대비

E-1 챔피언십을 주관하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은 총 10개 국가(일부는 자치령)가 머리를 맞대 2002년 설립한 조직이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 홍콩 등 동아시아 주축 나라들이 속해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인접 국가들이 모여 있다 보니 2년마다 열리는 E-1 챔피언십은 때로 정치의 축소판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과 북한의 맞대결이다. 분단의 갈등을 안고 있는 남북은 이 대회에서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기 일췌였다. 사전 신경전은 기본이었고, 그라운드 위에선 육

두문자와 격렬한 몸싸움이 오갔다.

올해 대회는 북한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남북 맞대결이 무산됐지만, 또 다른 이슈가 축구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과 홍콩의 만남이다. 중국과 홍콩은 6월부터 송환법 철회를 놓고 극력하게 부딪히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이를 계기로 반중 시위와 민주화 운동을 전개시키면서 충돌 강도는 더욱 세졌다. 문제는 두 나라의 남자 선수들이 18일 부산아시아드에서 맞붙는다는 점이다.

돌발 시위 혹은 양국 축구팬들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한축구협회(KFA)는 지자체, 지역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KFA 관계자는 11일 “EAFF측에서 먼저 연락을 했다. ‘소요 사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회를 개최하는 KFA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이었다. 부산시, 부산지역경찰청과 협의해 당일 경기장으로 기존보다 많은 경호인원을 투입한다. 현장 대응팀도 가동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RIVADI**  
Winterize boots

## 2020년 리바디 천연소가죽 패션방한부츠



두툼하고 따뜻한 방한충전재, 완벽한 방한기능, 강력한 미끄럼방지, 세련된 유럽형 디자인

◆지면으로 부터의 충격을 막아준다. ◆천연소가죽의 부드러움과 내구성으로 장기간 신을 수 있다.

정통 유럽 브랜드 리바디가 천연소가죽 방한부츠를 출시하였다. 일반 가죽보다 내구성과 유연성이 좋은 천연소가죽은 신으면 신을 수록 발에 맞춘듯 부드럽고 편하게 걸터여 진다. 또한 천연소가죽 특유의 질감과 광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클래식한 감성이 살아나며 고급스러운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 끈과 지퍼를 동시에 채용하여 끈 묶고 풀 일 없이 몇초 만에 사이드지퍼로 간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다. 발볼이 넓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이드지퍼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발 크기에 맞춰 놓고 사이드지퍼를 사용하면 된다. 풍부하고 폭신하게 내장된 방한 충전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한기를 차단하여 발이 시리거나 한기를 느낄 수 조자 없다. 방한 기능은 방한화의 기본이다. 천연소가죽을 사용하여 완벽한 통풍성을 유지하면서도 겨울철 딱

딱하게 얼어붙은 바닥의 냉기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리바디 방한부츠의 가장 큰 장점이다. 겨울철 지면은 눈과 얼음으로 인해 딱딱해지고 거칠어 진다. 그래서 신발 바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데 리바디 방한부츠는 내구성이 강하고 마찰력이 강한 러버 아웃솔을 적용하여 지면에 착감기는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최고급 천연소가죽 외피는 어떠한 발 모양도 부드럽게 감싸주어 매우 우수한 착화감을 만들어 준다. 리바디 방한부츠는 겨울철 험해지는 보행환경에 적응할수 있도록 완벽한 방한기능과 미끄럼 방지기능을 강화한 겨울용 방한부츠로 한국의 겨울날씨에 최적화된 완벽한 패션 컴퍼트 방한부츠이다.

**기업체, 단체화 주문접수중**

사이즈 (남)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mm

(여) 230 / 235 / 240 / 245 / 250 mm



(남성용 고급형)

모델명

리바디-101 (블랙)  
리바디-102 (브라운)  
소재 : 천연소가죽

66%  
OFF

모델명

리바디-103 (블랙)  
리바디-104 (브라운)  
소재 : 천연소가죽



(여성용 고급형)



모델명

리바디-301

(남성용 최고급형)

색상 : 블랙  
소재 : 최고급 천연소가죽

65%  
OFF

소비자가 : 198,000원 → 할인가 : 69,800원  
(택배비 무료배송)

NAVER **견생방송** 진수테크쇼핑 등 **추천사**

제품구입문의 : 1566-1788 (주말, 공휴일 주문가능)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주)진수테크  
인터넷주문 : [www.j1234.co.kr](http://www.j1234.co.kr)